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

부활절 의식 / 의식서 7-3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부활절 의식서 37-46]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사도경 : 사도행전 1, 1-8 / 248
- 복음경 : 요한 1, 1-17 / 96
- 부활절 계란 축복 / 의식서 46
- 사랑의 대만과 / 예식서 47-69

2019년 부활절 메시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빛나는 부활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올해도 우리가 이 거룩한 선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원천

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애니 4조)라고 노래하듯, 그리스도께서는 죄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타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기를”(로마서 5:6) 간구하며 거룩한 교회에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후 영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적 부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영적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로마서 6:2)는 의미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로마서 6:4)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전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 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로마서 6:6~7)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가작가는 교회의 이 위대한 진리를 절대적인 신념으로 삼아 ‘부활 카논 3오디’의 한 성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여, 어제 나는 당신과 함께 묻혔지만, 오늘 나는 당신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당신과 함께 깨어났나이다. 구세주여,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수난을 지나온 나에게 하늘 왕국의 영광을 나누어 주소서.”

위에서 말한 부활의 의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론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 우리의 생명은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토대를 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삶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부활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한 사람은 모두를 사랑하며 “부활로 모든 이를 용서합니다.”(부활절 조과 영광송)

또한 부활한 사람은 생의 매 순간에 하느님께 영광드리며 살아갑니다. 즉,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I고린토 10:31)라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요한 17:13) 또한 이 하느님의 기쁨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후 “하늘, 땅, 지옥, 온 세상이 이제 빛으로 가득 찼기”(부활 카논 3오디)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성직자들과 하느님 안에서 봉직하고 있는 모든 분과 함께 영적 기쁨을 전하며 그리스도 부활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 모든 성인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행실로 가르쳤도다.”라는 교회의 선언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부활의 명백한 증인과 전령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신다

독일 베를린의 마르코 대주교

만일 하느님이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면, 그리고 만일 그분이 박해와 고통이 없이 우리를 온전히 보존해 주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뒤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따랐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점들이 있기에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과정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인류를 위한 어떤 자유 의지도 배제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는 로봇과 같은 것을 더 좋아하는 반면에 사람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등 기계적인 것에 종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아는 온갖 전제적인 형태로써 그러한 표현을 억압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도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자유 의지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 의지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를 증언할 것이기 때문이기에...

▶ 아타나시아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5월 1일(수), 축일을 맞이하시는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께 축하드리며, 건강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지난 4월 15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로 인한 재해에 대해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는 한국가톨릭 교회에 애도와 위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님,

지난 4월 15일 월요일에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사고에 대해 진정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인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하루빨리 복원되어 영적으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과 형제애와 함께.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정교회
한국대주교

또한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서도 가톨릭교회 부활절 날에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해 애도와 위로의 서신을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께서도 4월 21일 스리랑카에서 우리의 형제들인 로마가톨릭

교회의 부활주일에 일어난 테러에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290명의 사망자들과 500여 명의 상처 입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리랑카의 부활절에 일어난 참사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랑과 이성적인 생각이 지탱되기를 기원합니다.

■ 용미리 구세주 부활 성당 예배 안내

부활절 다음 주일인 5월 5일 토마 주일에 용미리 묘지 부활 성당에서 오전 10시에 성찬예배가 거행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4월 20일 라자로 부활 토요일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 교인 루가 임민혁, 슬라브어 사용 교인 나탈리아, 스베틀라나, 스베틀라나, 라자로, 마리아, 니콜르, 아르테미스, 미국 교인 야고보 Verville 교우들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감사합니다

니나(Nina Cucu) 교우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제단용 카페트를 기증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사가 이루어지는 제단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신 니나 교우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